

## 감수자: 이한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가 틀렸거나, 더 나은 표현이 있거나, 용어상 관례를 따르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을 아래에 적어 봅니다. 이를 참고해서 2차, 3차로 다시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번역수정 글 아래에 괄호()를 열고, 수정의 이유rationale를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민병모님이 했던 원래 해석도 대비시켰습니다.

\*\* it is a weak requirement of social welfare in the sense that the exists which makes everyone better off—even those who are rich in the allocation in question 그것은 그 분배로 인해, 부자가 더욱 부유해지더라 하더라도, 하여튼 누구든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면 (역주-다른 사람의 후생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된다는 의미에서 사회 후생의 약한 조건이다.

(weak라는 것은 약하다라고 통상 번역하는데, 일상적 용법과는 다릅니다. 보통 공리나 가정에서 약하다, 강하다라고 쓰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참일 것을 '많이 요구한다',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두 명제를 보십시오.

명제1: 사회후생은, 못사는 사람이 나아질 때에만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명제2 : 사회후생은, 못사는 사람이든 잘사는 사람이든, 이전보다 누군가 더 나아지기만 한다면 높아진다.

위 명제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명제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경우, 무엇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명제1의 경우에, (1)누군가 나아진다. (2) 그 나아진 사람이 못사는 사람이다. 두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명제2는 (1) 누군가 나아진다. 하나의 조건만 요구합니다. 따라서 명제1은 명제2의 부분집합이고, 명제2가 더 적은 조건을 요구하므로 약한 후생공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상품의 어떠한 바람직한 최종적인 분배도 (노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에서의 권리를 포함하는) 생산 수단(in the means of production)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재분배를 역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in the means of production의 mean은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means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의미'라는 추상명사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수단이라는 뜻으로 맑스주의 문헌에 매우 빈번한 관용구입니다. 이것을 의미...등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입니다.)

\*\* 완전 경쟁 시장의 일반균형에서(in a general competitive market equilibrium) 각 경제 주체는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

(general과 equilibrium에 대한 해석을 빼먹었군요. 일반...이라는 말은 부분..의 반댓말로, 여기서는 일반균형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쓰여진 용어입니다. 통상 경제분석은 부분 시장 분석입니다. 노동시장 분석, 쌀 시장 분석, 임대차 시장 분석..등등.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일반균형이론을 전제로 하여, ceteris pribus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석에는 '일반균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파레토적 의미로 봤을 때(in the Paretian sense)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개인의 자기이익을 추구한 결과이다.

(파레토주의자의 감각..이라는 말보다는, 파레토적인 후생공리를 가지고 평가했을때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 맞을 것입니다. 파레토주의자가 무슨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social efficiency는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 효율성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효용은 utility이지요. 특히, 문맥으로 보자면, 개인이 각자의 정보와 역량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으로, 단순히 효용 자체의 산출이 아니라,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tiglitz's criticism of the Walrasian world-view is Hayekian Stiglitz 스티글리츠의 왈라시안 세계관에 대한 비판은 하이에크주의적이다.

(하이에크적인 부분이다..라고 번역한다면, 이 '부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부분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단순히 '속성'을 평가한 '적'이라는 접미어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용가능한(available) 노동의 질,

(확보가능한.. 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확보와 이용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Are you available now? 라는 뜻은 (1) 당신 지금 쓸로냐? -그래서 내가 니 꼬셔도 되냐?라는 뜻과 (2) 지금 당신 시간 있냐?-그래서 내랑 데이트 해도 되냐?라는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확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사용가능하다, 활용가능하다는 뜻만 담겨 있지요. Water in this town is not available. 이라는 문장 등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용가능한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단어 선택이겠지요.)

\*\* Planners cannot possibly capture the correct response of a firm manager to this informationally incomplete and complex environment by instructing him to maximize profits against some postulated set of prices, or more generally to choose that level of output which equates marginal cost to price

계획자들은, 기업에게 이미 설정된 가격의 몇몇 세트(set)를 여기면서까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더 일반적으로 한계비용과 가격이 동일한 산출수준을 택하도록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가 불완전하고 복잡한 환경에 대해 기업 경영자가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할 수 없다.

(우선, firm manager은 기업가라고 번역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문장에서도 기업가라고 다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기업가는 없습니다. 기업가는 영어로 entrepreneur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함과 동시에 경제적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적 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슈페터의 저작에서도 명확하게 서술되었듯이, 기업가는 단지 한계생산비용과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산출수준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 하는 인물입니다. 랑게의 왈라시안

적 사회주의 계획모델에서, 변하는 상황에 맞춰 산출수준을 조정하는 사람은 단지 공장의 책임자, 즉 '기업 경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되게 '기업 경영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은 전체가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획자들이, 그들이 원했던 기업의 행동조정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해석은, 이 긴 부정문을 앞에서 순서대로 해석해서, 어느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융통성을 취하여, 앞에서부터 부정임을 '없다'라는 말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equate라는 말은 단순히 '들어맞게'라는 뜻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100=100$  이런 것이 바로 등식(equation)입니다. 들어맞는다는 말은 보통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meet),라는 용법에서만 쓰지요. 이 주장에서 스티글리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사회주의 기업 경영자는 일종의 관료입니다. 그는 시킨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만약 주어진 계획을 변경하고 애를 쓰더라도 그것을 높이 평가받지 않을 뿐더러, 실패했을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계획자의 의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업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리인 감시-통제 메카니즘'의 부재 때문입니다. 원 해석에는 정보의 불완전성, 복잡한 환경이 이유로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은 오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가가 '대응해야 할 대상'이지, 대응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 one can also ask, if the purpose of the price-iteration procedure conducted by the central planning bureau was simply to find prices that would clear the markets for inter-firm trade, then why not let the market set those prices directly, if one believes as Lange did that markets will find market-clearing prices?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중앙 계획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가격 재조정(price-iteration)의 목적이 단지 기업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청산하게 만드는 가격을 찾는 것이라면, 왜 시장이 직접 그 가격들을 결정하도록 하지 않는가? 만약 랑게가 믿었던 것처럼, 시장이 청산 가격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는다면 말이다.

(원래 해석과 대조해 보십시오. 위에 제시한 것이 보다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앙계획국..이라는 단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이라는 표현은 행정기관의 서열상 특수한 표현이므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관'이라는 용어가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원래 해석 : 다음과 같은 것도 물을 수 있다. 만약 중앙계획국(central planning bureau)에 의해 수행되는 가격 재조정(price-iteration)의 목적이 단지 기업 간 거래를 위한(for inter-firm trade) 시장들을 청산하기 위한 가격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 시장이 직접 그러한 가격들을 결정하도록 왜 놔주지 않는가?Lange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장이 시장을 청산하는 가격들(market-clearing prices)을 찾을 거라는 점을 믿는다면 말이다 )

\*\* 우리가 Lange의 안을 독해하는 바로는, Joaquim과 나는 중앙의 분배의 또 다른 목표(the other allocation goal)는 간섭이 없을 경우 상품의 투자와 소비 사이의(investment and consumption goods) 산출(output) 구성(composition)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분배의 목표 중 하나는 청산가격을 찾아내는 것, 다른 하나는 투자결정이라고 랑게가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투자결정을 국가가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목표중 하나로, 자본가들이 무정부주의적으로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지요. 전체 이윤의 부분 중 어느만큼이 소비에 쓰이고 얼마만큼이 투자가 쓰일 것이냐 그 비율구성(예를 들어 40%와 60%의 구성)을 정부가 이자율 정책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composition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output는 결과가 아니라 산출이라고 번역해야 겠지요. 다른 문장에도 구도, 결과, 이렇게 번역했는데 고쳐야 좋겠지요)

\*\*Hayek와 Stiglitz 사이의 차이는, Hayek는 이러한 제도들이 선택적인 적응(selective adaptation)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for the task) 최적의 형태로 변한다고 믿는 반면, Stiglitz는 그러한 가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selective adaptation은 선택적 변안...이 아니라 선택적 적응 이라고 쉬운 말로 써야겠지요. 선택적 적응은 바로 진화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이에크가 진화론의 기능주의적 시각을, 시장기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즐겨 차용했다는 것은 유명합니다.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제도들은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윤극대화를 강제하는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이지 못하면 도태한다. 그러므로 가만히 놔두는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티글리츠는 국가개입이 없으면 비효율적인 제도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

\*\*A public good or bad is one which is consumed by many individuals if it is consumed by any, such as national defence or polluted air

공공재와 공공악재는 국방이나 오염된 공기처럼, 불특정 다수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이다. (이 문장에서 if는 '만약'이라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지라도'라는 양보의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소비될지라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말인즉슨, 특별히 누구라고 정해진 사람없이 누가 소비하든 말든 하여튼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의해 소비되는 재화다..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이재걸이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걸과 이재걸이 그 사용을 허락한 자만이 쓸 수 있는 재화입니다. 또한 많이 쓰면 닳습니다. '차감성'이 존재하지요. 또한 한번에 여러명이 달려 들어 쓸 수 없습니다. '배제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염된 공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마셔도 줄어들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 '비차감성'과 '비배제성'의 존재! 이것이 바로 'public'의 뜻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공부했던 JAVA라는 프로그램 언어에도, class라는 모듈을 짤 때에 제한자에 public이 오면, 그 모듈을 다른 클래스가 얼마든지 차용해서 쓸 수 있다...뭐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로머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경제학도들을 대상으로 쓴 논문이라, 다 안다고 가정하고 썼기 때문에 엄밀하지 못한 형태로 서술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지요.).

\*\* 정부의 개입은 피구세Pigouvian 나 보조금(subsides) 혹은 직접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것

을 통해서, 이러한 공공재들/공공약재들의 양을 바꾸는(증가시키거나/감소시키는) 것으로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Pigouvian tax는 그냥 피구세..라고 합니다. 피구세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환경세라 하지 않고 피구세라 하는가? 혹시 피구를 할 줄 아는 새의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토빈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외환거래시에 약간의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입유출을 막는 세금입니다. 이거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노벨 경제학상 받은 토빈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훌륭한 제안을 했다, 해서 토빈세라 그러합니다. 피구세는 그러니 피구, 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세금입니다. 자, 환경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에 세금을 딱칠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되지요. 생산을 해야 사람들이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이 완전해지기 이전에는 생산에는 항상 어느 정도건 환경오염이 따릅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후생적으로 가장 최적인 오염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최적인 오염수준의 생산을 유도하는 세금이 피구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염의 한계외부비용과 그 오염을 야기시키는 경제활동의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에 적정 오염수준을 결정하고, 그 오염수준에서의 한계외부비용과 같은 수준의 세율이 결정되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계라는 말은 marginal이라는 용어로, 한단위 더 늘어날 때 생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lack, known technically as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거기에는 전문 용어로 소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고 알려진, 두가지 이유가 있다.

(technically를 원래 해석에서는 '기술적으로'라고 번역했는데, 문맥상 기술이라는 놈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개나 소나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쓰는 사람을 별로 못봤습니다. 학생들 공부 안해도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요. 도덕적 해이는 무슨 얼어죽을 놈의 도덕적 해이? 학생이 무슨 보험을 들었다고. 정확하게 못 쓰는 이유는 그 용어가 단어 그 자체에서 추론되는 일상적 용법과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르쿠제가 쓰는 '허위의식'이라는 용어, 맑스주의에서 쓰이는 '계급'이라는 용어, '착취'라는 용어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그냥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던 대로 추론하면 대개가 다 틀립니다. 약한 가정, 강한 가정, 이런 말도 그렇지요. 이런 용어를 학계에서는 전문용어, 즉 자르곤(Jargon)이라고 합니다. 이 자르곤을 로머가 이야기하면서, 그냥 사족으로 '내가 자르곤 이야기한다'라고 붙인 것이 바로 known technically 라는 구절입니다. technically는 전문적으로,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문용어로, 라고 해야 문맥상 뜻이 더 잘 통하겠습니다)

\*\* non clearing market은 비청산적인 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비청산 시장...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지요.

\*\* Any Pareto-efficient allocation is Walrasian equilibrium associated with some initial distribution of property rights in assets(labour, firms, other production inputs, and consumption goods

모든 파레토 최적 분배는, 각 나름의 자산(노동력, 기업, 다른 생산 투입물, 그리고 소비재)에 관한 초기 재산권 분배가 있는 왈라스 균형이다.

(먼저, labour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라 번역하는 것이 여기서 다른 단어와 대응에 맞겠지요. 노동은 노동력이 작용하는 것이고, 소유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이겠지요. 맑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일관되게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은 소유하지만, 노동력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노동력은 노동자가 소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inputs 또한 재화의 의미로 투입물이라고 해야겠지요. 이런 사소한 용어보다는, 문장의 뜻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로머가 문맥상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초기자산 분배와 상관없이 파레토 최적점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지요. 즉, 초기자산이 평등하건 평등하지 않건 그것은 사회적 효율성과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some을 '일정한' 다는 '나름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겠지요. 마찬가지로 associated with도 연결되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있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Walrasian은 일관되게 왈라시안으로 해야 되지만, 관례상 '균형'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왈라스 균형이라고 좀 더 깔끔하게 쓰기도 합니다.)

\*\* A welfarist should always want a resource allocation with the property that no other allocation exists that could improve everyone's welfare. 복지론자는, 모두의 후생을 개선시키는 어떤 다른 분배방식도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관한 자원 분배를 항상 추구해야만 한다. (역주: 모두의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파레토 최적인 초기 자산분배를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로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스티글리츠가 시장사회주의를 공격한 모든 무기에도 불구하고 SWT는 건재하다는 것, 그리고 그 SWT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후생공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로머는 property와 everyone에 "따옴표를 쳤어야 했지요. 이러한 명제는 결국, 사회후생함수를 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사회후생함수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윤리적 명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콜버그의 호프집에서 재산권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이미 증명했던 바입니다)

\*\* 이것은 어떠한 파레토최적의 분배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SWT의 잘못된 역명제(the false converse)와는 혼동되지 않는다.

\*\*Ronald Dworkin은 이것을 '재능있는 자의 노예상태(slavery of the talented)'라고 불렀다. (원 해석은 '재능있는 노예'라고 되어 있지요. 노예인데, 재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노동력에 대해 부분적인 소유권을 타인이 가질 경우 윤리적으로도 효율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를 꼬집어 지적한 용어겠지요. the talented에 앞에 the라는 정관사가 붙은 것은 이것이 the+과거분사 형태를 이용한 명사 만들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재능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slavery는 노예상태, 예속상태, 노예제도를 의미합니

다. 재능있는 노예는, talented slave라고 해야 옳겠지요.)

\*\*is the approximation (of reality by the model) nevertheless good enough to permit one to use the lessons of the model to design a version of market socialism?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을 실제세계에 적용하여 낸 근사치는, 그 모델의 교훈들을 시장사회주의의 한 형태를 기획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 can a version of market socialism nevertheless be designed which works at approximately the level of efficiency of a modern capitalist economy, but in which the distribution of income/resources is considerably more egalitarian than it is under capitalism?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달성하고 있는 효율성의 수준에 가깝게 달성하면서도, 수입/자원의 분배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평등 지향적인, 시장사회주의의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

(여기서 nevertheless는 can에 걸리는 것이지, 즉 본문에서 이 문장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조건의 불완정성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지, 그 뒤의 구문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뒤의 구문에 걸리게 할려면, but 을 빼고 그 자리에 가야 되겠지요.)

\*\* but Walrasian model gives us an answer when we model the economy as one with, let us say, a hundred thousand markets.

그러나, 왈라시안 모델은, 예를 들어, 십만개의 시장을 하나의 경제로 모형화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준다

(스티글리츠의 통찰이 부분시장균형 분석에만 타당한 반면, 왈라시안 모델이 엄격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반균형분석이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말을 로머는 하고 있습니다. model the economy as one with에서 with에 걸리는 말은 뒤의 a hundred thousand markets입니다. model은 모형화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델링한다...콩굴리쉬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as는 ‘..로서’ 라고 통상 해석하는 ‘자격’ ‘간주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as one’ 하나로!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Mother would treat us as one. “울 어머니는 우리 둘을 한 놈으로 다루곤 했다. 옷도 똑같은 거 사주고, 이름도 한 사람만 부르면서 둘 다 달려오길 기대하고..기타 등등”. 한국에서는 쌍둥이도 아니고 형제인데도 이렇게 대우받는 경우도 있지요. let us say “그래, 엄청 많은 시장을 하나로 다루는데, 실감 안나나? 일반균형이론의 강점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주지, 수십만 개의 시장도 하나로 분석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let us say는, ‘말하자면’-통상 영어구문에서 i.e.라는 약어로 쓰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e.g.)로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의 시장...이라고 쓰려면, hundreds or thousands markets 이라고 썼어야죠. 그렇지만 로머는 그렇게 안썼습니다. 미국사람들은 1000단위로 끊어서 숫자를 표시합니다. 숫자들이 붙어 있으면 곱하기가 생략되었다고 봐야죠.

즉, a hundred thousand는  $100 \times 1000 = 100000$  입니다. 80만은 어떻게 표시하죠? eight hundred thousand 겠지요. 이때 복수형s는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을때는 붙입니다: "수천명의 소녀들이 나를 억수로 좋아한다" - 뭐라고 표현할까요?

Thousands of girls are crazy for me.)

\*\*this is, indeed, the second question enumerated above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에서 던진 두번째 질문이다.

(스티글리츠가 두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 두번째 질문에 대해 상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맞보기였고, 두번째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라는 겁니다)

\*\* Thus, because these fifth-generation models do not direct all economic activity with prices issued by centre, but allow price formation on actual markets, they are, at least by initial presumption, innocent of the main false conception for which Stiglitz attacks the Lange-Lerner model

그러므로, 이들 제5세대 모델은, 중앙에서 발표한 가격에 의해 모든 경제활동을 지시하지 않고, 실제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초의 가정과 관련해서는, 스티글리츠가 랑게-러너 모델을 공격했던 주요한 오류개념으로부터 면제된다.

(fifth는 5th이지요....^^. direct는 지도..라기 보다는 지시..라고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가정에 서부터..가 아니라,... 가정과 관련해서는...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 careerist 경력 추구자

(경력가...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요. 기업가, 작가, 그러는데 경력가...? 로머가 제안하는 5세대 모델에서 경영자는 단순히 관료가 아니라 임노동자입니다. 일종의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그러면 그는 그의 기대임금을 극대화하고 좋은데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경력이 좋아야겠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서 일했는데, 그가 경영하고 나서 그 회사 도산했다. 그러면 경력 파탄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적인 한, 그는 합리적일 것이고, 좋은 경력을 축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력 추구자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Lange모델의 변종(Langean variety)는 아닐지 모르지만

( Langean variety는 랑게 모델의 변종,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kind가 종류이고, variety는 변태를 말합니다. 변이체, 변종, 체체파리의 유전변화로 인한 변체.....Fly라는 영화에 나오는 파리+인간의 합체생물도 variety. 따라서 여기는 랑게 모델의 변종이라고 의역하는 것이 낫겠지요. 경제학자들 자체가 변태가 된다 그러면 플라이라는 영화가 생각나게 되니까요.)

\*\*독일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employed) 세 번째 방법에서는, 신용관계 혹은 심지어 주식소유에 의해서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영을 감시한다



(어순이 원래 해석에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mploy는 고용하다는 뜻 뿐 아니라, '어떤 방식을 채용하다' 이런 뜻이 있지요. ex. I employed logit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atistical research on classes. "나는 계급에 관한 이 통계적 연구에서 로짓 회귀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요 은행이 여러 개의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대리인(즉, 기업)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방식이 독일과 일본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머와 함께 시장사회주의 모델을 연구했던, 바드란이라는 경제학자는 이것을 게이렛츠 keiretz 즉, 계열사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게이렛츠란, 일본에서 큰 은행과 여러개의 기업들이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계열 형태를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은행은 아예, 기업에 지점장을 파견합니다. 지점장은 기업의 수익상태나, 미래 전망, 투자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냅니다. 합리적인 의견인데 거부하면 적신호 갑니다. 기업 대출 받기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비합리적 의견 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중앙에서 논의되겠지요. 감시와 처벌 관계라기 보다는 공동운명을 가진 밀접한 상호작용관계라 볼 수 있겠지요.)

\*\*감독위원회 the board of director

\*\*여기서 다시, Stiglitz의 비가격적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brought to bear).

(원래 해석에서는 '참을 만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곱에게 가져오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문맥에 맞추어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ar는 그 이외에 '염두에 두다' '명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bear in mind 하면 명심하다라는 숙어지요.)

\*\*on the other hand, as I've discussed, he is less enthusiastic than is typical about capitalism's ability to solve agency problems within the firm by invoking the interests of private share-holders

다른 한편으로, 이미 논의한 것처럼, 스티글리츠는 자본주의가 기업 내의 대리인 문제를, 사적인 주식 소유자들의 이해를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데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제학자들보다 덜 열광적이다.

(즉, 스티글리츠는 주식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해석은 문장의 뜻을 완전히 반대로 봐서, 스티글리츠를 더 열광적으로 몰아붙였군요. 그리고 invoke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을 인과적으로 야기하다라는 뜻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에 경각심을 주다, 일깨우다, 활성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ex. Hidegar enthusiastically invoked German spirit. "하이테거는 게르만 정신을 열광적으로 일깨웠다. 역설하였다.... ")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s)

(연성의 반댓말은 경성입니다. 연하다, 딱딱하다. 연성, 경성. 연성헌법, 경성헌법. 쉽게 고칠 수 있는 헌법. 쉽게 못고치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제도상으로 경성헌법에 속하지만,

경정도 정도가 여러가지라 아예 고칠 엄두를 못내는 미국헌법보다는 훨씬 연성입니다. 너무 많이 고쳐서 탈이지요.)

\*\*공적 재정지원 또는 공적 재정공급(public financing)

\*\* 'the former socialist economies are in the perhaps unique position of being able to obtain a degree of equality of ownership of wealth unattained, and perhaps unattainable, in other market economies'

구 사회주의 경제는 아마도, 다른 시장경제에서는 결코 획득할 수 없었고, 아마 획득할 수도 없을 정도의 부에 대한 소유권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former는 그 전의... 라는 뜻이지요. New Left Review에 로머의 글이 실린 때는 바야흐르 동구 공산권 붕괴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실현시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 어떤 형태로 국가소유의 기업들을 처분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죠. 로머는 쿠폰으로 분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냥 잘게 주식을 나눠 분배했는데, 먹고 살게 없었던 민중들은 모두 전 국가관료였던 자들에게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결국 엄청난 생산수단 소유권 독점이 일어나고 말았죠.)

\*\*I might add that Taiwan carried out significant investment planning by the use of interest-rate subsidies, a price-oriented device that Stiglitz is sceptical about, and the Japanese MITI undertook a variety of deep interventions to develop particular industries. 그러한 잘못된 정부역할의 사례로, 타이완이, 스티글리츠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지향적 방책인, 이자율 보조금을 사용하여 중대한 투자계획을 수행한 것과, 일본의 MITI가 특정한 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깊은 개입을 한것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 and a substantial fraction of large firms are not privately owned in the usual sense, as fraction of corporations with some very large shareholders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는다. 몇몇의 대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의미에서는 말이다.

(로머의 시장사회주의 구상에서 각 주식은 사적으로 '분점'됩니다. 물론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 아니냐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로머는 sense를 제한하고 있죠. 대주주들이 독점한다는 의미로 사적소유가 아니다.)

\*\*holding company 지주 회사. 모회사.

(A라는 기업의 과반수 이상을 B라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면, B는 A기업의 지주회사 또는 모회사이겠지요.)

**\*\*raising loans**

공채를 모집하는 것.

(원래 해석에는 '모은다'고 되어있네요. 공채를 발행해서 모집하는 것과 공채를 모으는 (gather)하는 것은 다른 뜻이지요.)

**\*\*portfolio 포트폴리오**

(그냥 이렇게 읽는대로 쓰더군요. 유가증권명세표라는 뜻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 그러한 종이 쪼가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즉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포된 자산을 뜻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1억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맹구는 그걸 전부 한빛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요즘같은 (저축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인 시대에 맹구는 한달에 1억으로 겨우 34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지요. 그리고 한빛 은행 부도나면 맹구는 겨우 2000만원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 되면 1억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일원화된 포트폴리오 분배의 단점입니다. 한편, 영희는 1000만원은 주식투자, 2000만원은 고위험성 수익기금에, 4000만원은 전세금으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 4000만원을 각각 2000만원으로 쪼개어서 은행에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영희의 수익은 아마도 -30만원~+200만원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물론 안전한 포트폴리오와 수익 극대화 포트폴리오는 다릅니다. 기업가들은 주로 수익극대화 포트폴리오를, 학자나 월급쟁이들은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취합니다. 위험을 현실로 안았을 때, 그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을 평가하는 기대효용함수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것으로 일단, 진한 색깔로 표시한 문장들에 대한 검토를 마칩니다.

민병모 회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번역이라는 것을 다른분들도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도로 스트레스 쌓이는 노가다인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학회가 이러한 기여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번역의 시행착오 경험들이 이렇게 축적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저는 학회의 다른 분들도, 짧은 글이나마, 관심있는 분야의 글들을 번역하면서, 이해 안가거나 미심쩍은 부분은 원문과 함께 여기에 번역본을 올려서 여러 학회원들과 함께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다른 곳으로 번져나간다면 더욱 좋겠지요. --> 이걸 '시민교육센터'로 바꾸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번역이 필요한 문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워서 실제 써먹을 생각은 안하고, 시험치는데만 활용합니다. 만약 시험공부하는데 들이는 정력의

1/3이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한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헌량이 장난 아니게 많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분야를 심도깊게 공부하려면 꼭 거쳐가야 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문헌들은 최소한 요약번역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인문사회과학에 발전이라는 것이 없고 유행만이 있게 됩니다. 1990년대 살았던 사람이 기본문헌 읽느라 10년이 걸렸는데, 2000년대 사는 사람이 또 10년이 걸리면, 어쨌든 빨리 시작한 놈이 장땡이 되버리는 시간싸움이 됩니다. 한 사람이 평생동안 읽을 수 있는 문헌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헌들은 보다 그 내용을 일별하여 더 깊이 파고들어가야 하는지 정도는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번역이나 번역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단순히 번역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번역 과정 상의 오류를 감수한 내용도 같이 올려 놓음으로써 그 분야의 다른 문헌을 번역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세계 각지 대학의 자세한 커리큘럼이나, 설립과정, 설립에 관한 법령 등은 시급히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막대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번역 풀(pool)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영어 배웠는데도 번역 안합니다. 1년에 논문 하나만 번역해도 시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